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성령강림절】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1(통46).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를 부르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맡겨진 삶의 소임을 다하고 하늘나라로 간 영혼을 주님의 큰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십시오. 주님, 삶의 지표를 잃고 큰 슬픔에 빠져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슬픔 중에도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은 성령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 오신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주십시오. 탐욕과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안에 깊게 자리하고 있는 이기심을 뿌리째 뽑아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십시오. 이 땅의 그릇된 질서를 갈아엎으시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요14:27 ..... 인도자

♠ 교 독 문 ..... 135. 성령강림(1) ..... 다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 다함께

대표기도 ..... I. 조재훈 선생 II.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392. 주여 어린 사슴이 ..... 다함께

성경봉독 ..... I. 마10:40-42 ..... 배동준 학생

..... II. 눅4:16-21 ..... 문홍일 집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시원한 성령 ..... 김재홍 목사

..... II. 희년(禧年)이 된 사람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함께

- 찬 송 ..... 170(통16). 내 주님은 살아계서 ..... 다함께
- ♠ 봉 헌 .....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예수님에게 임한 자유의 영이 우리들에게도 임하였음을 믿으십시오. 자유와 해방의 영 가운데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저버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살아온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던져 베풀어주신 자유를 귀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성령이 일으키신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빈 그릇 운동과 지구살림꾼 지령이	6월 기도의 밤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최문희 선생 한상의 장로	박제림 학생 윤미경 집사

5월	영접위원	한완식 조문규 박규석 안정숙 진정숙 권미정
	헌금위원	방문성 정영선(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유토피아

프랑스 대혁명에 가담한 혁명주의자들 중에서 당시 전 지구상에서 사회정의의 실현하며 인간의 행복해질 권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던 사람들을 특별히 ‘이상주의자(utopiste)’라고 불렀다. 이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과격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생쥐스트는 27세, 바비프는 37세의 나이에 단두대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자크 루는 혁명 정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단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가 하면 마라는 암살당했다. 하지만 단두대와 단검은 이들의 육체는 파괴했을지언정 이들의 투쟁에서 싹튼 전 세계적인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갈구와 희망마저 앗아가지는 못했다. 이들의 정신은 오늘을 사는 수백만 지구 시민들의 의식 속에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욕망이 되어 맥을 이어가고 있다.

유토피아라는 용어는 여러 세기 전에 등장했다.

영국 제사이며 에라스무스를 비롯하여 문예부흥기의 정신적 지도자들과 친분을 유지했던 토머스 모어 경은 1535년 7월 6일 참수 당했다. 무슨 죄목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불평등과 불의가 판을 치던 헨리8세 치하의 영국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을 저술했다. 그 책의 제목은 『국가의 최선 정체(政體)와 새로운 섬 유토피아에 관하여』였다.

토마스 모어에 앞서서 조아키노 다 피오레를 비롯하여 초창기 프란체스코회 수도사들, 조르다노 브루노와 그의 제자들이 민중의 법이 지배하며 모든 인간이 안전과 행복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하나의 제국 안에서 인류 화합을 이루기 위해 투쟁했다.

조아키노 다 피오레나 조르다노 브루노, 토머스 모어 등의 저술이나 복음 전도에서는 인간의 행복해질 권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토머스 모어는 그리스어에서 장소를 뜻하는 ‘topos’에 접두사 U(부정을 뜻하는 접두사)를 붙여 유토피아(U-topia), 즉 ‘장소가 아닌 곳’을 의미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유토피아는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장소나 세계를 가리킨다.

유토피아는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을 의미한다. 유토피아는 지상에서의 짧은 생애 동안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유토피아는 요

구 가능한 정의까지도 내포한다. 유토피아는 인간의 의식이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자유와 연대의식, 나누어 갖는 행복의 도래를 표현한다. 유토피아는 결핍인 동시에 욕구로서 전 세계적인 사회정의를 위한 인간들의 모든 행동의 가장 내밀한 원천이 된다. 이러한 정의 없이는 우리들 그 누구도 행복이란 불가능하다. (……)

인간은 본질적으로 미완성적인 존재다. 유토피아는 인간의 가장 내밀한 곳에 깃들여 있다. 블로흐는 “죽음의 순간에 우리들 각자는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생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 ‘더 많은 생’을 우리는 당연히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는 누릴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그것을 유토피아로 넘겨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뒤를 이어서 살게 될 사람들의 욕망 속으로 넘겨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임종의 고통 속에 놓인 순간에, 우리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 자신, 즉 우리의 자아를 다른 사람, 즉 우리보다 뒤에 살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역설이 유토피아를 지배한다. 유토피아는 정치적, 사회적, 지성적인 분야에 내재하고 있는 관습을 지배한다. 또한 그에 따라 사회적 움직임이나 철학적인 동향을 만들어낸다. 유토피아는 개인들의 투쟁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면서도 역설적이게도 그 개인들의 지평을 넘어서는 곳에서만 현실성을 획득한다.

……

생쥐스트는 그의 생사를 결정할 판정관들인 파리 공안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나는 나를 이루고 있으며 당신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먼지 덩어리를 경멸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처형하여 이 먼지 덩어리의 입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세기가 지난 다음, 아니면 하늘나라에서라도 나한테서 나만의 독자적인 삶을 맛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보십시오.”

다음 날인 1794년 7월 27일, 생쥐스트는 파리 시내 콩코르드 광장에 설치된 단두대에 올랐다.

## 나의 자식들에게

위험한 곳에는 아예 가지 말고 / 의심 받을 짓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돌아가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대로 집에만 있으면 / 양지바른 툇마루의 고양이처럼  
나는 언제나 귀여운 자식이었다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 /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사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 인생이 힘들 것 무엇이랴 싶었지만  
그렇게 살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수양이 부족한 탓일까  
태풍이 부는 날은 / 집 안에 들어앉아  
때 묻은 책을 골라내고 / 옛날 일기장을 불태우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위해 / 자꾸 찢어버린다  
이래도 무엇인가 남을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짓을 못하게 되어도 / 누군가 나를 기억할까  
어쩌면 그러기 전에 낯선 전화가 / 울려올지도 모른다  
지진이 일어나는 날은 / 집에만 있는 것도 위험하고  
아무 짓을 안 해도 의심 받는다  
조용히 사는 죄악을 피해 / 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평온하게 살지 마라 / 무슨 짓인가 해라  
아무리 부끄러운 흔적이라도 / 무엇인가 남겨라

- 김광규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 헌금영수기 ◇

### 십일조헌금:

박옥식 김춘려 강인식 김정숙 곽상준 최경미 김경연 박규석 박경선  
 박영희 박지인 박창운 허정윤 이광용 형인순 이한림 김명희 임고운  
 임승동 백혜숙 임 영 정경례 정복순 조병주 최종원 허호범 박성실  
 박효선 이성운

### 월정헌금:

김남종 오복순 김순자 박준희 이기분 안길상 이형숙 이성범 이정은  
 하현철 최성애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정완수 김재광 최동은 박찬정  
 황의일

###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윤석철 장해숙 김철수 유영남 고유비 전성오 박숙현  
 최종훈 김금하 윤주필 전진우 배 철 맹혜선 방문자 무명3

### 생일감사헌금:

김훈동 김남홍

### 녹색꿈 헌금:

김희은 박영희 곽상준 김용길 최영혜 무명1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해숙	박성실	조순덕	연합속회
베들레헬	노순옥	정경례	서정순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서원금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최경미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조병주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기분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구성실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박찬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김희우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박옥식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배삼순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성령강림절** : 오늘은 성령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2. **빈 그릇 운동** : 오늘 오후 집회는 <빈 그릇 운동과 지구살림꾼 지령이>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구역인사위원회** :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4. **기도의 밤** : 이번 주 수요일은 6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5. **연합속회**: 이번 주 속회는 5일(금) 11시에 교회에서 연합으로 모입니다.  
예배인도 : 갈릴리 속    식사당번 : 안디옥 속
6. **CO<sup>2</sup> 저감 녹색교회 실천단** :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주관하는 CO<sup>2</sup>저감 실천단을 모집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7. **환경주일 연합예배**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주최하는 2009년 환경주일 연합예배가 오늘 오후 3시, 성공회 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있습니다.
8. **신앙실천** : 교회의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늘었습니다. 좀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갈라디아 속 (다음 주 : 갈라디아 속)

\* 설거지 봉사 : 방문성 이준하 (다음 주 : 곽상준 최경미)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